

# 동지 (12월22일)밤, 한국 과 일본에서 약 20개 장소에서 「원폭의 불씨」로 캔들 나이트를 개최.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에서 「원폭의 불씨」를 넘겨받은 한일의유지(有志)가 개최.

12월3일~5에 한국과 일본에서 약 20명이 한국피폭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합천에 모여 한국피폭자 5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곳에 밝혀진 「평화의 불씨」가 나누어졌습니다. 한국의5개소, 일본의17개소에서 캔들 나이트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캔들 나이트의 취재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1 합천에 사시는 한국피폭자들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2 평화의 불씨를 나누어 받는 모습.

## 한국피폭자에 관해 배운 뒤 불씨를 나누어 받다.

캔들 나이트 원피스 실행위원회 주최의 합숙에서 피폭체험당, 재판이야기, 피폭2세의 이야기, 수첩을 받지 못한 분의 이야기 등 합천에서 한국피폭자에관해 배운 다음에 「평화의 불씨」를 10~30대를 중심으로 하는 유지 약 20명이 나누어 받아 돌아갔습니다.

## 전깃불을 끄고 촛불만으로 지내는 「캔들 나이트」.

「전깃불을 끄고 천천히 밤을 지냅니다.」라는 표어로 매년 하지와 동지에 열리는 환경을 배려한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새로운 습관입니다.. 일본에서는 약800만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의 목적은 사용하는 불씨에 「원폭의 불씨」가 제안되어 한국피폭과 평화에 관해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조선인의 대부분은 합천출신입니다. 합천에는 많은 한국 피폭자들이 계시고 한반도 유일의 피폭자시설이 있습니다. 한일양국의 좁은 무관심의 슬픔과 고독 속에서 지내온 한국피폭자분들의 인생에 많은분들이 마음을 담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번 기획의 목적입니다.



## 호시노촌에서 타오르고 있는 「원폭의 불씨」

히로시마에서 병역 중이었던 故 야마모토 다츠오 씨가 숙부의 유골 대신으로 원폭의 불씨를 고향인 호시노무라로 가지고 돌아와 불을 밝혀 왔습니다. 그것을 호시노무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이어 받아 「평화의 불씨」라고 이름 붙여져소중하게 불을 밝혀 왔습니다.  
12월3일 캔들 나이트원피스 실행위원회가 합천에 보냈습니다.



### 문의처

캔들나이트 1피스 실행위원회

10~40대의뜻있는 사람들에 의한 임의단체. 후쿠오카현 야메시 호시노무라의 평화의 불을 사용한 캔들나이트를 전국에 호소하였다. 2008년 가을에는 한일크루즈로 평화의불을 옮겨, 부산에서의 캔들나이트를 성공시켰다.

〒540-0029 大阪市中央区本町橋6-21MFK本町第一ビル903号 TEL: 06-6375-7816

E-mail:info@1pi-ce.jp HP:http://www.1pi-ce.jp/ ブログ:http://onepi-ce.seesaa.net/

# Candle Night in KOREA

Candle Night 1 Pi:ce (KOREAN Language)  
<http://www.1pi-ce.jp/kr/>



日時:12月22日 20:00-22:00  
会場:釜山大学・寄宿舍(釜山金井区長前洞2洞  
釜山大学)  
参加費:無料  
主催:福山鮎実・玄 和俊  
連絡先:010-4484-0277 wakura.7@gmail.com



日時:12月22日 18:00-21:00  
場所:HAJA CENTER(予定)  
HAJA Center, Yeongdeungpodong7-ga, Yeongdeungpodongpo-  
gu, Seoul, Korea  
参加費:無料  
主催:女性環境連帯(KWEN)  
連絡先:82-2-722-7944 kwen@ecofem.or.kr



日時:12月22日(19:00-20:00)  
場所:京畿市民社会FORUM 教育場 :韓国 京畿道 水原市 長  
安区 松竹洞 184  
主催:京畿市民社会FORUM 尹玉慶  
連絡先:031-252-1330 civilforum@hanmail.net  
参加費:無料

日時:12月22日(20:00-22:00)  
場所:軍浦環境自治市民会 :韓国 京畿道 軍浦市 廣亭洞  
136-1  
主催:韓日100年平和市民NETWORK 李大洙  
連絡先:070-8285-1330 peacewind21@hanmail.net  
参加費:無料



日時:12月22日 19:00-20:00  
場所:大邱KYC会議室 韓国 大邱市 中区 GyeSan洞 2-139  
DongGwang Bild.101  
主催:大邱KYC(Korea Youth Coop) 金ドンニョル  
連絡先:053-6533-3015 kyc-daegu@hanmail.net  
参加費:無料

2010년 12월

## 한반도의 정세에 대하여 재한 피폭자로부터의 메시지 원폭의 불로 「PEACE」

올해, 동지 전후에 원폭의 불로 한일 캔들나이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며 재한피폭자들이 모여계시는 합천에서 한국, 일본의 약 10명 정도 씩이 모여 원폭의 불을 나누는 "채화 셀레모니"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장으로 사용한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계시는 재한피폭자들에게 이 불로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메시지를 "캔들나이트"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찬성하여 주셔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로부터의 소중한 메시지를 기사로 채용할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다운로드: 블로그의 "재한피폭자들의 메시지 「PEACE」"에서 고해상도의 사진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onepi-ce.seesaa.net/>  
(<http://onepi-ce.seesaa.net/article/172169601.html>)

12월4일19시경 촬영

참가해주신 재한피폭자는 36분, 캔들은 약 130개 사용

아래와 같은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 우리들의 바람은 세계 평화입니다
- 핵이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 우리들은 그것이 가장 두렵다.
- 이웃나라끼리 협력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한다.

합천에서 한일의 뜻을나눈 후쿠오카현 야메시 호시노무라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원폭의 잔화"평화의불"은 한국의 5곳의 회장을 포함하여 약 60여곳에서 12월 22일 전후에 개최되는 캔들나이트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문의처

캔들나이트 1피스 실행위원회

10~40대의뜻있는 사람들에 의한 임의단체. 후쿠오카현 야메시 호시노무라의 평화의 불을 사용한 캔들나이트를 전국에 호소하였다. 2008년 가을에는 한일크루즈로 평화의불을 옮겨, 부산에서의 캔들나이트를 성공시켰다.

〒540-0029 大阪市中央区本町橋6-21MFK本町第一ビル903号 TEL: 06-6375-7816

E-mail:info@1pi-ce.jp HP:http://www.1pi-ce.jp/ ブログ:http://onepi-ce.seesaa.net/